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

소위 수일설을 중심으로

Daoxins and Wonhyos Standpoint on Cultivation - Focusing on the Theory of Guarding the One -

저자 (Authors)	김영일 Kim, Yeong-Il
출처 (Source)	불교학보 84 , 2018.9, 69-92(24 pages) BUL GYO HAK BO 84 , 2018.9, 69-92(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9275
APA Style	김영일 (2018).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 불교학보, 84, 69-9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8 16:4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

- 소위 '수일설'을 중심으로 -

김영일

동국대학교 강사

- I. 서언
- II. 수행체계
 - 1. 도신의 수행체계
 - 2. 원효의 수행체계
- III. 존삼설
 - 1. 도신의 '관신공적'
 - 2. 원효의 '존삼해탈'
- IV. 수일설
 - 1. 도신의 '수일불이'
 - 2. 원효의 '수일심여'
- V. 결어

〈한글요약〉

본고는 중국 선종의 제4조인 도신(道信, 580-651)과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중의 한 분인 원효(元曉, 617-686)의 핵심 수행관을 『능가사자기』와 『금강삼매경론』를 주요한 텍스트로 하여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연구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위 ‘수일설(守一說)’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이전에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소위 ‘존삼설(存三說)’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두 분의 전체적인 수행체계를 대체로 비교해 보았다. 도신은 지체(知體), 지용(知用), 상각(常覺), 관공(觀空), 수일(守一) 등의 ‘5단계 수행’과 좌선(坐禪), 간심(看心), 사신(捨身) 등의 ‘3가지 수행’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원효는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십신(十信),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廻向), 십지(十地), 등각(等覺), 묘각(妙覺) 등의 ‘대승보살 52계위’에 대비하여 정교하게 해설하고 있다.

둘째, 수일설 이전에 반드시 등장하고 있는 ‘존삼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신에게 있어서 존삼설이란 ‘관신공적(觀身空寂)’을 말하는데, 이는 제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몸의 6가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공(空)한 것을 알고 마침내 3가지 해탈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원효에게 있어서 존삼설이란 ‘존삼해탈(存三解脫)’을 말하는데, 이는 수행자가 3가지 지혜로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공하다고 판단하면 얻게 되는 3가지 해탈[三解脫]을 간직[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셋째, 존삼설 이후에 등장하는 ‘수일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신에게 있어서 수일설이란 ‘수일불이(守一不移)’를 말하는데, 이는 수행자가 하나의 사물[一物]을 주의 깊게 바라보되 끊임없이 계속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원효에게 있어서 수일설이란 ‘수일심여(守一心如)’를 말하는데, 이는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상관없이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一心)의 진여문(眞如門)을 항상 가슴에 지키는 것[守]을 말하고 있다.

주제어 : 도신, 원효, 능가사자기, 금강삼매경, 금강삼매경론, 존삼설, 수일설

I. 서언

도신(道信, 580-651)은 중국 선종의 제4대 조사로서 초조 달마로부터 이어져 오는 초기선종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선종은 제3조 승찬(僧璨, ?-606)까지는 세력이 미미하였으나, 도신에 이르러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더니, 제5조 홍인(弘忍, 601-674)과 함께 동산 법문을 성립시키게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종은 제6조 혜능(慧能, 638-713)을 거치면서 굳건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원효(元曉, 617-686)는 통일신라시대에 찬란하였던 한국불교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인물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당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대승불교의 조류들을 종합하여 ‘화쟁’이라고 하는 독창적인 사상을 완성하였는데, 그 조류들 중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선사상이다. 원효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금강삼매경론』은 바로 이 사상을 극명하게 밝혀놓고 있다.¹⁾

중국의 초기선종에 관심이 있는 학자 중에는 당시 한국의 원효가 밝혀놓은 『금강삼매경』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가 적지 않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넓게 보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선종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남종선의 뿌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²⁾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을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려는 본고의 노력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신의 수행관에 관심을 두거나, 원효의 수행관에 관심을 둔 선행연구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핵심 수행관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다. 본고는 『능가사자기』와 『금강삼매경론』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능가사자기』는 약1세기전 둔황에서 새로 발견된 초기선종사서인데, 신수(神秀)와 현색(玄奘)의 제자인 정각(淨覺, 683-750)이 저술하였다.³⁾ 능가선법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술된 이 책에는 구나발타라부터 신수의 제자에 이르는 선승들이 등장한다.⁴⁾ 이 중

1) 논자는 중국의 초기선종사상과 원효의 수행체계는 서로 비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상 ‘원효의 선사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원효의 수행체계가 잘 드러나 있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신의 간심(看心)에 대해서 북종선과 남종선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 달마의 이입사행과 『금강삼매경』의 이입행입과의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 등이 남아있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 등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3) 저술시기에 대해서, 柳田聖山은 처음에 713에서 716년 사이로 추정하였으나, 이후에 719에서 720년 사이로 수정하였다. 柳田聖山, 『初期の禪史 I - 楞伽師資記・傳法寶紀』(東京: 築摩書房, 1971), pp.20-30;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第6卷(東京: 法藏館, 2000), p.90.

에 도신에 관한 분량이 3분의 1에 달하는데, 대부분 그의 저서인 『입도안심요방편법문(入道安心要方便法門)』에 있었던 내용이다.⁵⁾

또한,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을 원효가 해설한 책인데, 이 경전의 성립에 대해서는 중국성립설과⁶⁾ 한국성립설이⁷⁾ 있다. 또한, 이 경전에 담겨있는 선사상은 초기선종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달마의 이입사행설(理入四行說)과의 관계,⁸⁾ 도신의 수일불이설(守一不移說)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고는 특히 도신의 수일불이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II. 수행체계

도신과 원효의 핵심적인 수행관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에 앞서, 두 사상가의 수행체계의 틀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정된 자료를 감안해 볼 때, 두 사상가의 수행체계를 확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다만, 『능가사자기』와 『금강삼매경론』에 드러난 수행체계를 대체적으로 구성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에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 4) 『능가사자기』는 중국 선종의 초조에서 제7조까지의 초기 조사들의 선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전법보기』는 초기 선사들의 행적이나 일화를 간략히 기술하였지만 법문이나 어록은 거의 없다. 또한, 『歷代法寶記』는 초기 선사들에 대해서 간략한 행적과 일화만 소개하고 있다.
- 5) 저자인 정각이 달마의 안심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신이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진일, 『『능가사자기』 「도신전」에 관한 일고』, 『선학』 제7호(서울: 한국선학회, 2004), pp.87-88.
- 6) 제1설은 650년 이후에 등장한 偽經이라고 한다. 水野弘元, 「菩提達摩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 『駒澤大學研究紀要』 13 (1955), pp.56-57; Walter, Liebenthal, “Notes on the Vajrasamadhi”, 『通報』 42 (1956);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京都: 禪文化研究所, 1967). 제2설은 중국 삼계교에서 편찬하였다고 한다. 석길암, 『『금강삼매경』의 성립과 유통에 한 재고』, 『보조사상』 제31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9), pp.79-127.
- 7) 제1설은 大安이나 元曉 주변の人들이라고 한다. 木村宣彰, 「金剛三昧經の眞偽問題」, 『佛敎史學研究』 18-2 (1976). 제2설은 大安, 惠空, 蛇福 등이라고 한다. 김영태,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 제25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8). 제3설은 신라의 法朗이라는 설이다. Robert E. Buswell,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i-Sutra, a Buddhist Apocryphon”,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89), p.174.
- 8) 水野弘元은 달마선이 먼저라고 하고, 柳田聖山은 『금강삼매경』이 먼저라고 한다. 水野弘元, 「菩提達摩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 『駒澤大學研究紀要』 13 (1955); 柳田聖山, 「金剛三昧經の研究」, 『백련불교논집』 3 (1993).

1. 도신의 수행체계

『능가사자기』 「도신장」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⁹⁾ 전반부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진실이다’는 가르침과¹⁰⁾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에 대한 가르침이 제시되고¹¹⁾ 이와 관련된 몇 차례 문답이 오고 간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도신의 수행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도신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앞에는 ‘5단계 수행’이 등장하고, 뒤에는 ‘3가지 수행’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단계 수행’이란, 지혜를 통한 인식활동과 실천을 통한 체험 활동을 겸한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 수행을 가리킨다. 그리고 ‘3가지 수행’이란, 좌선(坐禪), 간심(看心), 사신(捨身) 등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따르게 되는 구체적인 수행 활동을 지칭한다.

먼저, 도신이 제시한 ‘5단계 수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마음의 본체를 알아야 하고,¹²⁾ 둘째 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야 하며,¹³⁾ 셋째 항상 깨어있어 멈추지 않고,¹⁴⁾ 넷째 몸이 공적(空寂)함을 항상 관찰하며,¹⁵⁾ 다섯째 하나의 대상을 지키고 옮기지 않게 한다.¹⁶⁾ 이 중에서 넷째와 다섯째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넷째, 몸이 공적(空寂)함을 항상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제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눈, 귀, 코 등도 공(空)하고 여기에 상대하는 형상, 소리, 냄새 등도 모두 공(空)하다. 그러기에 마침내 3가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금강삼매경』에서 말하는 ‘존삼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

9) 도신의 선사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참고문헌에 적어 놓았다.

10) 도신의 선사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2가지 설이 있다. 첫째, 반야사상이라는 설이 있다.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第6卷(東京:法藏館, 2000), p.62;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서울:민족사, 2000), pp.165-169; 김진무, 「道信禪師의 禪思想과 그 意義」, 『불교학보』 제42집(서울: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5), pp.77-94. 둘째, 능가사상이라는 설이 있다. 박건주, 「근래 道信禪師 禪法 연구에 대한 반론(1)」, 『불교학연구』 제10호(김포:불교학연구회, 2005); 박건주, 「근래 道信禪師 禪法 연구에 대한 반론(2)」, 『불교학연구』 제11호(김포:불교학연구회, 2005).

11) 도신의 수행체계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일행삼매’에 대해서, 최동순은 천태의 영향을 받았지만 천태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법을 창출하였다고 본다. 崔桐淳, 『雙峰道信의 一行三昧에 대한 연원』, 『한국불교학』 제31집(서울:한국불교학회, 2002), pp.107-124.

12) 『楞伽師資記』(『大正藏』 85, p.1,288上), “知心體 體性清淨 體與佛同.”

13) 앞의 책, p.1,288上, “知心用 用生法寶 起作恒寂 萬惑皆如.”

14) 앞의 책, p.1,288上, “常覺不停 覺心在前 覺法無相.”

15) 앞의 책, p.1,288上, “常觀身空寂 內外通同 入身於法界之中 未曾有礙.”

16) 앞의 책, p.1,288上, “守一不移 動靜常住 能令學者 明見佛性 早入定門.”

서는 ‘Ⅲ. 존삼설’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다섯째, 하나의 대상을 지키고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사물을 주의하여 바라보기를 밤낮으로 끊어짐 없이 이어가며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음이 흩어져 달아나려고 하면 급히 거두어들여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한다. 이 설명도 『금강삼매경』에서 말하는 ‘수일설’과 매우 비슷한데, 이점에 대해서는 ‘Ⅳ. 수일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다음, 도신이 말하는 ‘3가지 수행’이란, 좌선, 간심, 사신 등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말한다. 첫째, ‘좌선(坐禪)’이란, 마음이 어떤 경계에 끌리어 생각이 일어날 때에는 곧바로 그 일어난 곳이 필경에 일어난 바가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이 대상에 끌리어 가는 반연(攀緣)과 생각하여 관찰하는 각관(覺觀) 등이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음을 관찰하면 마음의 동요가 없어져 안정하게 된다고 한다.¹⁷⁾

둘째, ‘간심(看心)’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선 단정히 정좌하여 몸을 편안하게 하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해지면서 정신이 맑고 예리해지면서 관찰이 분명해 진다. 그러면, 내외가 텅 비어 맑아지면서 심성이 적멸되고 마침내 신성한 마음이 드러나니 이것을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불성을 보면 영원히 생사를 떠나니, 이를 출세인(出世人), 보살인(菩薩人), 오도인(悟道人), 식리인(識理人)이라고 한다.¹⁸⁾

셋째, 사신(捨身)이란, 보통 불보살에 대한 공양의 뜻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집착을 버린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즉, 몸이란 단지 인연화합으로 잠시 이루어진 가유(假有)의 상태라고 보아서,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다. 그리하여 청정한 법신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¹⁹⁾ 이상에서 논의한 도신의 수행체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1> 도신의 수행체계²⁰⁾

5단계 수행		3가지 수행
① 지체(知體)	② 지용(知用)	① 좌선(坐禪)
③ 상각(常覺)	④ 관공(觀空)	② 간심(看心)
⑤ 수일(守一)		③ 사신(捨身)

17) 앞의 책, pp.1,288下-12,89上.

18) 앞의 책, p.1,289上.

19) 앞의 책, p.1,289上-中.

20) <표1>에서, ‘④ 관공(觀空)’은 『능가사자기』에 있는 ‘常觀身空寂’을 줄인 말이고, ‘⑤ 수일(守一)’은 ‘守一不移’를 줄인 말이다.

2. 원효의 수행체계

한정된 자료를 감안해 볼 때, 원효의 수행체계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²¹⁾ 여기에서는 다만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해설하는 수행구조를 ‘임시로’ 원효의 수행체계라고 부르려고 한다.²²⁾ 『금강삼매경』 「입실제품」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서는 실제(實際)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입(二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그의 수행체계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다.

- ① 이입(二入)이란 첫째는 이입(理入)이요, 둘째는 행입(行入)이다. ‘이입(理入)’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며, 같지도 않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객진번뇌에 의해서 가려있음을 깊이 믿으며, ㉡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아니하여 각관(覺觀)에 굳게 머물며, ㉢ 불성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을 자세히 관찰하며, ㉣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아니하여 금강심(金剛心)의 경지에 굳게 머물러 옮기지 않으며, 적정(寂靜)하고 무위(無爲)하여 분별이 없게 되니, 이것을 이입(理入)이라고 한다.
- ② ‘행입(行入)’이라고 하는 것은 ㉤ 마음은 기울거나 의지하지 않고, 마음의 대상[影]은 흐르거나 변화함이 없으며, 있는 모든 곳에서 생각을 고요히 하여 추구함이 없어서, 바람이 두르려도 동요하지 아니함이 마치 대지와 같다. ㉥ 마음과 자아를 버리고 떠나서 중생을 구제하였건만, (구제된) 중생도 없고 (구제한) 모습도 없어서, 취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²³⁾

이와 같이, 『금강삼매경』에서 말하는 이입(理入)이란, 수행자가 이성을 통한 이지적인 활

-
- 21) 원효의 경우는 『보살영락본업경소』에서도 관련된 자료가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삼매경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2)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여러 관법을 설한다. 즉, 「무상법품」에서 무상관(無相觀)을 설하고, 「무생행품」에서는 무생선(無生禪)과 무생반야(無生般若)를 설하며, 「입실제품」에서는 존삼(存三), 수일(守一), 입여래선(入如來禪)을 설하고, 「진성공품」에서는 여래의관을 설하며, 「여래장품」에서는 진관(眞觀)을 설하며, 「총지품」에서는 심제관(審諦觀)인 삼제(三諦)를 설한다. 이 중에서 논자는 「입실제품」에 등장하는 관법들이 선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논하고 있다.
 - 23) 『金剛三昧經』(『大正藏』9, p.369下), “二入者一謂理入二謂行入 理入者深信衆生不異眞性不一不共 但以客塵之所翳障 不去不來 凝住覺觀 諦觀佛性 不有不無 無己無他 凡聖不二 金剛心地 堅住不移 寂靜無爲 無有分別 是名理入 行入者 心不傾倚 影無流易 於所有處 靜念無求 風鼓不動 猶如大地 捐離心我 救度衆生 無生無相 不取不捨.”

동을 통하여 불성을 관찰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무분별의 경지에 이르도록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행입(行入)이란, 수행자가 이치적인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살행으로 실천하는 교화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거나 어디에 집착함이 없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처님 말씀을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해설하고 있다. 즉, ① 문단에서 ‘이입(理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행자가 이치에 따라서 믿고 이해는 하였으나, 아직 체득하여 행하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수행계위로 표현하면 초지 이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는 십신(十信), ㉡는 십주(十住), ㉢는 십행(十行), ㉣는 십회향(十廻向)에 각각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② 문단에서 ‘행입(行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행자가 이 단계에서 이치를 증득하여 수행하여 이미 무생행(無生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수행계위로 표현하면 초지 이상이 되는데, 만일 구분해서 말하면, ㉠부분은 자리(自利)의 행입을 말하는 것이고, ㉡부분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에 들어가게 하는 이타(利他)의 행입을 말한다고 원효는 설명하고 있다.²⁵⁾

중요한 것은, 『금강삼매경』에서 말하는 이입과 행입에 대해서, 원효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단계인 52계위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입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에 해당하고, 행입은 십지, 등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²⁶⁾ 그리고 이러한 원효의 해석태도는 이어지는 존삼, 수일, 입여래선과 같은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설명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존삼’이란 존삼해탈(存三解脫)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존삼해탈이란, 수행자가 선정에서 닦은 마음을 선정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마주 대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存], 허공해탈(虛空解脫), 금강해탈(金剛解脫), 반야해탈(般若解脫)이라는 3가지 해탈[三解脫]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원효는 이 존삼해탈이 십신에서 시작하여 십주에서 완성된다고 해설하고 있다.²⁷⁾

24)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p.641下-642上).

25) 앞의 책, p.642上.

26) 원효는 행입이 십지 이후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마땅히 ‘묘각’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강삼매경』 ‘입실제품’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6가지 수행[六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수행의 결과인 묘각이 빠져있다. 이처럼, 수행의 결과인 묘각을 빼고 논의하는 『금강삼매경』의 태도에 맞추어서, 여기에서도 행입에 십지와 등각만을 제시하였다.

27)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p.646下), “... 如是乃名存三之用也 是觀如修在十信位 存用得成在十住位 如本業經十住位中 立此觀故.”

또한, ‘수일’이란 ‘수일심여(守一心如)’를 줄여서 부른 말이다. 수일심여란,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거나 선정에서 나오거나 할 것 없이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법의 2가지 법 중에서 심생멸문(心生滅門)이 아닌 심진여문(心眞如門)을 가슴에 항상 담아두고 지키는 것[守]을 말한다. 원효는 이 수일심여라는 수행이 십행의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⁸⁾

또한, ‘입여래선(入如來禪)’이란, 수행자가 무엇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분별심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 진제를 관조하더라도 중도라는 하나의 상에 머물지 않고, 선정 밖으로 나와서 속제를 관찰하여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얻거나 잃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원효는 이 입여래선이 십회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²⁹⁾ 이상에서 논의한 원효의 수행체계를 표시하면 <표2>와 같다.

<표2> 원효의 수행체계³⁰⁾

이입(理入)			행입(行入)		
존삼		수일	입여래선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이제, 앞에서 제시한 <표1>과 위에서 제시한 <표2>에서, 도신과 원효의 수행체계를 비교해 보자. 다른 점은, 첫째 도신은 그렇지 않지만, 원효는 경전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

28) 앞의 책, p.645 下, “案云 三時不失中道一味 卽是此觀守一之用 此觀在於十行位也.”

29) 원효가 입여래선이 십회향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논자는 원효가 그렇게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첫째, 원효는 ‘존삼’수행에서는 『본업경』의 십주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고, ‘수일’수행에서는 『본업경』의 십행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제 ‘입여래선’에서는 『본업경』의 십회향부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금강삼매경』에서 부처님께서 입여래선의 작용인 ‘관찰하다[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의 행위[內行]와 밖의 행위[外行]에 출입하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의 상[相]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득실이 없다. 그리하여,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경지[一不一地]에서 맑은 마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內行外行 出入不二 不住一相 心無得失 一不一地 淨心流入)”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입여래선의 작용[觀]을 한 결과, 초지[一不一地]에 이르러 비로소 맑은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셋째, 위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원효의 해석을 보면, “두 가지 방편에 의하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가 아닌 경지에 흘러 들어간다(依二方便 以淨其心 由是流入 一不一地)”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두 방편으로 입여래선 수행을 하여, 그 결과로 초지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30)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영일, 『『금강삼매경』의 존삼수일설』, 『대각사상』 제28집(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7), pp.299-326.

다.³¹⁾ 둘째, 도신도 각 요소간의 선후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원효는 각 요소간의 선후관계가 더욱 뚜렷하다.³²⁾ 셋째, 도신이 제시한 ‘3가지 수행’과 원효가 해설한 ‘행입’과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같은 점은, 첫째, 도신이 말한 ‘5단계 수행’과 원효가 해설한 ‘이입(理入)’은 지혜를 통한 인식활동과 실천을 통한 체험활동을 겸한 수행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둘째, 그 중에서도, 도신이 설명한 관공(觀空)과 원효가 해설한 존삼(存三)은 내용상 매우 닮았다. 셋째, 도신이 설명한 수일(守一)과 원효가 해설한 수일(守一)도 내용상 매우 닮았다. 이하에서는 존삼과 수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존삼설

『능가사자기』와 『금강삼매경론』을 보면, 소위 ‘좁은 의미의 수일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행이 먼저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도신은 ‘수일(守一)’을 말하기 이전에 ‘관공(觀空)’을 말하고, 원효는 수일(守一)을 해설하기 이전에 ‘존삼(存三)’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의 수일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소위 ‘존삼설(存三說)’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신의 ‘관신공적(觀身空寂)’

도신의 ‘5단계 수행’ 중에서 4번째는 ‘상관신공적(常觀身空寂)’으로 시작한다. 도신은 이것에 관해서 3가지 점을 설명하는데, 첫째, 수행자는 ‘무상(無常)’의 이치를 이해하여야 하며, 둘째, 그 무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6가지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공(空)’하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하며, 셋째, 그리하여 마침내 3가지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먼

31) 『능가사자기』에 보면, 도신도 자신의 5단계수행이 모두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원효의 경우처럼 『금강삼매경』이란 특정한 경전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경전에 간접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학계에서는 『금강삼매경』이 동아시아에서 성립한 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이 위경으로서 성립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신이 그토록 말하고자 하는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닐까 추측해 본다.

32) 도신은 단순히 각 수행의 선후관계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해설하는데 있어서, 『본업경』에 등장하는 보살의 수행단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저, 무상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보자.

먼저 마땅히 수신(修身)하고 세밀히 관찰해야 하니 몸으로 근본을 삼는다. 또 이 몸은 4대와 5음이 화합된 것이어서 마침내 무상(無常)에 돌아가는 것이라 자재할 수 없다. 비록 아직 몸이 파괴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공이 되고 만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금방 변하고 소멸하고 만다”고 하였다.³³⁾

여기에서, 도신은 수행자의 몸이 무상(無常)하다고 말한다. 지금 수행자가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몸’은 지·수·화·풍의 4대와 색·수·상·행·식의 5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법인 중의 제행무상(諸行無常)에 따르면 ‘몸’은 그러한 인연화합상태를 벗어나자마자 곧 흩어지는 덧없는 무상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유마경』에서는 이 몸을 뜬구름에 비유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 ① 이를테면 눈이 사물을 볼 때 눈에는 사물이 없는 것과 같다. 거울이 사물의 모습을 비추면 지극히 분명하게 공허한 가운데에서 사물의 그림자를 나타내지만 거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과 같다. ... 중략 ... 이와 같이 자세히 분별하여 판단하면 눈 안과 거울 속은 본래 항상 텅 비어 고요하고, 거울이 비추는 것과 눈이 비추는 것이 똑같다. 이 까닭에 이처럼 비유하는 것이니, 코와 혀의 여러 인식기관들도 그 뜻이 또한 그러하다.
- ② 눈이 본래 공임을 알았으니 무릇 보이는 형상이 모든 것이 다른 형상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이 다른 소리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코로 향기를 맡을 때에 이것이 다른 향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혀로 맛을 구별할 때에 이것이 다른 맛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의식으로 현상을 인식할 때에 이것이 다른 현상임을 알아야 하고, 피부로 촉감을 느낄 때에 이것이 다른 촉감임을 알아야 한다.³⁴⁾

여기에서, 도신은 무상을 바탕으로 6가지 인식기관과 6가지 인식대상이 공(空)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①에서는 ‘6가지 인식기관이 공하다’고 하는데, 특히 눈을 거울에 비유하고

33) 『楞伽師資記』(『大正藏』 85, p.1,288 上), “先修身審觀 以身爲本 又此身是四大五蔭之所合 終歸無常 不得自在 雖未壞滅 畢竟是空 維摩經云 是身如浮雲 須臾變滅.”

34) 앞의 책, p.1,288 上-中, “如眼見物時 眼中無有物 如鏡照面像 了極分明 空中現形影 鏡中無一物 ... 중략 ... 如此細分判 眼中與鏡中 本常空寂 鏡照眼照同 是故將爲比 鼻舌諸根等 其義亦復然 知眼本來空 凡所見色者 須知是他色 耳聞聲時 知是他聲 鼻聞香時 知是他香 舌別味時 知是也 味 意對法時 知是他法 身受觸時 知是他觸.”

있다. 거울이 사물을 비추면, 거울에 사물의 그림자는 비치지만 거울 안에 사물은 실제로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눈에 그것의 영상은 비치지만 실제로 그것은 눈 안에 없기에 ‘눈은 공하다’는 것이다.

②에서는 6가지 인식기관의 상대인 ‘6가지 인식대상도 모두 공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눈 안에는 사물의 영상만 있고 사물은 실제로 없다. 따라서 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물은 단지 사물의 영상일 뿐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사물 자체가 아닌 ‘다른 사물’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듣거나 맛을 보는 대상들도 모두 다른 사물들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이는 텅 비어 고요함을 관찰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 것이고,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형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형상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바로 공(空)이고, 공이 바로 무상(無相)이며, 무상이 바로 무작(無作)이다. 이것이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니, 이것을 배우는 이들은 해탈할 수 있다. 여러 인식기관의 예를 이와 같이 들어 설명하였거니와,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니, 6가지 인식기관이 공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 듣거나 보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유교경』에 이르기를, “이때 한밤중에 이르러 고요하여 아무 소리도 없었다”고 하였다.³⁵⁾

여기에서, 도신은 수행자가 마침내 얻게 되는 3가지 해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행자는 ‘6가지 인식기관이 공하다’는 인공(人空)과 ‘6가지 인식대상이 공하다’는 법공(法空)을 터득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눈으로 형상[色]을 보지만 그 형상을 받아들이지는[受] 않는다. 그리하여, 수행자는 이제 3가지 해탈을 하게 되니, 공(空), 무상(無相), 무작(無作)이 그것이라고 한다.

이상, 우리는 도신의 설명을 들어보았는데, 그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삼법인의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수행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6가지 인식기관과 거기에 상대하는 6가지 인식대상이 모두 공(空)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공, 무상, 무작이라는 3가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5) 앞의 책, p.1,288中, “如此觀察知 是爲觀空寂 見色知是不受色 不受色即是空 空即無相 無相即無作 此是解脫門 學者得解脫 諸根例如此 復重言說 常念六根空寂 爾無聞見 遺教經云 是時中夜 寂然無聲.”

2. 원효의 ‘존삼해탈(存三解脫)’

그러면, 원효가 말하는 ‘존삼해탈’의 내용은 어떠한가? 『금강삼매경』에서 대력보살이 입실제의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서는 존삼, 수일, 입여래선 중의 하나로서 ‘존삼(存三)’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삼해탈을 간직하는 것[存三解脫]’이라고 간단히 대답하신다. 그런 뒤, ‘체(體)’의 측면인 ‘삼해탈(三解脫)’과, ‘용(用)’의 측면인 ‘간직한다[存]’에 대해서 차례로 논의하고 있다.³⁶⁾

먼저, 존삼의 체인 ‘삼해탈’에 대해서 살펴보자. 『금강삼매경』에서 대력보살은, “삼해탈 법이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께서서는, “3가지 해탈이란 허공해탈(虛空解脫), 금강해탈(金剛解脫), 반야해탈(般若解脫)을 말한다”라고 짚막하게 대답하신다.³⁷⁾ 이와 같은 경전의 대화에 대해서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본업경』 「십주품」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설명을 시작한다.³⁸⁾

사상(事相)에 의한 해탈관(解脫觀)에는 대략 두 가지 분류가 있다.³⁹⁾ 만일 사상(事相)에 의한 해탈관(解脫觀)이라면 오직 수혜관(修慧觀)일 뿐이니, 이것은 이승과 공통된 것으로서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러나 만일 삼혜관(三慧觀)에 의한다면⁴⁰⁾ 인(人)과 법(法)이 공적인 것이니, 이것은 대승관으로서 이 글의 설명과 같다.⁴¹⁾

여기에서,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해탈관은 ‘대승의 삼혜관에 의한 해탈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승불교의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문혜(聞慧), 부처님의 말씀을 꼼꼼

36) 체용(體用)의 논리는 중국사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상인데,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논리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학자들은 『금강삼매경』이 동아시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논자는 『금강삼매경』에도 이 체용의 논리가 적용되었다고 보기에, 이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 체용의 논리를 서양에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1930년대에 중국 베이징대학교의 탕용탄(湯用彤)이고, 오늘날 박성배는 이 논리를 ‘몸(體, Mom)과 몸짓[用, Momjit]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박성배, 『몸과 몸짓의 논리』(서울: 민음사, 2007).

37) 『金剛三昧經』(『大正藏』 9, p.370上-中), “大力菩薩言 三解脫法 是何等事 … 中略 … 佛言 三解脫者 虛空解脫 金剛解脫 般若解脫.”

38)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 24, p.1,013中)

39) 이 글 직전에 원효가 인용한 『본업경』 「십주품」에 8해탈이 등장한다. 8해탈은,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 정혜탈, 공처해탈, 식처해탈, 무소유처해탈, 비상처해탈, 멸진해탈 등이다.

40) 3혜관이란 문혜(聞慧), 사혜(思慧), 수혜(修慧)의 3가지 지혜에 의한 해탈을 말한다.

41)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p.646上), “案云八解脫觀 略有二門 若就事相唯修慧觀 是共二乘如餘處說 若就三慧觀人法空 是大乘觀如此文說.”

하게 되새기는 사혜(思慧), 선정에 들어서 진리를 체득하는 수혜(修慧)라는 3가지 지혜를 가지고, ‘인식주체가 공하다’는 인공(人空)과 ‘인식객체가 공하다’는 법공(法空)을 증득하여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 ① 첫째 해탈은 안으로 색상을 두고서 밖으로 색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공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문혜(聞慧)로 증득한다. … 중략 … 색 등을 버리지 않고서 공을 관찰하는 것이 마치 허공이 색상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허공해탈’이라고 하였다.
- ② 둘째 해탈은 안으로 색상을 없애고 밖으로 색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공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혜(思慧)로 관찰하는 것이다. … 중략 … 안팎의 모든 법을 추구하여 깨뜨리는 것이 마치 금강이 모든 색법을 깨뜨리는 것과 같으니, 이 때문에 ‘금강해탈’이라고 하였다.
- ③ 뒤의 6가지 해탈은 모두 수혜(修慧)이다. …중략… (6가지 해탈은) 정(定)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총괄하여 ‘반야해탈’이라고 하였다.⁴²⁾

여기에서, 원효는 수행자가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3가지 해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즉, 수행자는 3가지 지혜를 가지고 인(人)과 법(法)이 모두 공(空)함을 관찰하는 수행을 함으로써, 인집(人執)과 법집(法執)을 떠나고 상응박(相應縛)과 능연박(能緣縛)을 벗어나 마침내 허공해탈(虛空解脫), 금강해탈(金剛解脫), 반야해탈(般若解脫)이라고 하는 3가지 해탈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음, 존삼의 용(用)인 ‘간직한다[存]’에 대해서 살펴보자. 『금강삼매경』에서 대력보살은,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存用]이라고 합니까?”라고 부처님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마음과 현상[事]이 둘이 아닌 것을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한다”고 간단히 대답하셨다.⁴³⁾ 이러한 대화에 대해서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다음과 같이 ‘간직한다

42) 앞의 책, p.646上-中, “初解脫者 內有色相外觀色等 謂內存色等 五陰法相 觀內我空 外存色等 觀衆生空 是空易入 聞慧所得故 言聞慧得 內假外假 二相不可得故 不遺色等 以觀空故 有似虛空 不遺色相故 說是爲虛空解脫 第二解脫者 內無色相外觀色等 內遺色等 五陰法相 外觀一切山河等空 欲界諸法 無所不空 是空難解 思慧所觀 故言思慧 內五陰法 外一切法 不可得故 推求析破 內外諸法如似金剛 破諸色法 是故名爲金剛解脫 後六解脫 皆是修慧 觀上二界一切法空故 言修慧六觀 皆是修慧依定所發 是故總名般若解脫 … 중략 … 於中六種差別相者 第三名淨解脫 身作證 色界五陰 光潔寂靜 觀悉空 故名淨解脫 自內所證 名身作證故 言具足色界五陰空三解脫 第四名空處解脫 觀空處五陰空故 乃至非想解脫亦爾 觀滅定法亦不可得 故名滅盡解脫 皆從所遣 以立其名 故言四空五陰及滅定觀 皆不可得故 五解脫如相故.”

[存]의 의미를 풀이해 주고 있다.

만일 3가지 해탈[三解脫]을 익숙하게 잘 닦으면, 관행에서 나와 현상에 관여하더라도 관행의 힘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상(我相)과 타상(他相)을 취하지 않고, 좋고 싫음의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함께 잊어서, 마음과 현상이 다르지 않게 된다. 이를 일컬어 존삼(存三)의 작용이라고 한다.⁴⁴⁾

여기에서, 원효는 3가지 해탈을 잘 닦으면, 현상에 관여하는 순간에도 나와 남을 취하지 않기에 ‘마음과 현상이 다르지 않게 된다’고 해석한다. 누구나 홀로 선정에 들어 있을 때는 분별하지 않고 안정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과 만나는 순간부터, 곧 나와 남을 실제로 구별하고 세상에 따라 동요해 버리기 쉽다. 오직 ‘존삼해탈’을 굳건히 수행한 자만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 원효가 설명한 존삼(存三)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효는 체용의 원리에 의해서 체인 ‘삼해탈(三解脫)’과 용인 ‘존(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삼해탈’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3가지 지혜로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을 관찰하여 성취하는 것이라고 해설해 주고 있고, ‘존’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나오더라도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해 주고 있다.

만약, 도신의 설과 비교해 보면, “먼저 무상(無常) 혹은 삼혜(三慧)를 가지고, 다음 인공(人空)과 법공(法空)을 이해하고, 마침내 삼해탈(三解脫)을 이룬다”고 하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도신은 무상을 말하지만 원효는 삼혜를 말한다는 점, 도신의 삼해탈은 공, 무상, 무작이지만 원효의 삼해탈은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인 점, 등은 서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수일설

소위 ‘존삼설’에 이어서, 두 사상가는 ‘수일설’이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도신은 『능가사

43) 『金剛三昧經』(『大正藏』 9, p.370中), “大力菩薩言 云何存用 … 중략 … 佛言 心事不二 是名存用.”

44) 『金剛三昧經論』(『韓佛全』 1, p.646下), “若能熟修三解脫者 出觀涉事 觀勢猶存 不取我他之相 不竭好惡之境 由是不爲天風所鼓 入出同忘 心事不二 如是乃名存三之用也.”

자기』에서 ‘관공(觀空)’을 말한 다음에 ‘수일’을 말하고 있고,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존삼(存三)’을 해설한 다음에 수일을 설명하고 있다. 학계에서 ‘수일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신의 수일불이설(守一不移說)과 『금강삼매경』의 수일심여설(守一心如說)을 한꺼번에 가리키고 있다.

1. 도신의 ‘수일불이(守一不移)’

도신의 ‘5단계 수행’에서 5번째는 ‘수일불이(守一不移)’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소위 ‘수일설’이다.⁴⁵⁾ 도신은 이설과 관련해서 3가지 점을 언급하는데, 첫째는 수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둘째는 수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경전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셋째는 수일을 여러 가지 상황에 비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먼저, 도신이 말한 수일의 의미를 살펴보자.

‘수일불이’란 이 청정한 눈으로 ‘하나의 사물[一物]’을 주의하여 바라보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며, 오로지 힘쓰고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 마음이 흩어져 달아나려고 하면 급히 거두어들여 안정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새의 다리를 새끼로 묶어 두었다가 (새가) 날아가려고 하면 끈을 잡아 당겨 잡는 것과 같다. 온종일 끊임없이 (이처럼)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게 된다.⁴⁶⁾

여기에서, 도신은 새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수일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즉, 수일불이란, ‘하나의 사물[一物]’을 주의 깊게 바라보되,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만일 마음이 그곳에 집중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급히 거두어들인데, 이것은 마치 새를 끈으로 묶어두었다가 날아가려고 하면 끈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포섭하는 것이 도량이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마음을 포섭하는 법이다. (또한) 『법화경』에 이르기를, “무수겁 이래로부터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

45) 유전성산은 수일설이 불교와 도교의 상호교류를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보고 있다. 유전성산, 양기봉 역, 『초기선종사-능가사자기·전법보기』(파주: 김영사, 1990), pp.252-253.

46) 『楞伽師資記』(『大正藏』85, p.1,288中), “守一不移者以此淨眼眼住意看一物無問晝夜時專精常不動其心欲馳散急手還攝來以繫鳥足欲飛還掣取終日看不已泯然心自定.”

상 마음을 포섭하니, 이러한 공덕으로 능히 모든 선정(禪定)을 발생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경』에 이르기를, “인식기관이란 마음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을 한곳에서 제어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⁴⁷⁾

여기에서, 도신은 수일이 등장하게 된 경전상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즉, 『유마경』에서 ‘마음을 포섭한다’는 말, 『법화경』에서 ‘마음이 선정에 든다’는 말, 『유교경』에서 ‘한 곳을 제어한다’는 말이 모두 수일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뿌리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법화경』에서는 ‘잠잘 때를 제외한다’고 한 점은 도신이 ‘잠잘 때를 불문한다’고 한 것과 약간 다르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① ㉓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큰 과녁을 쏘아 보다가 다음에 작은 과녁을 쏘고, 이후에는 큰 표적을 맞추어 보다가 ... 중략 ... 그다음에는 앞에서 쏜 화살의 끝을 뒤의 화살이 맞히니, 화살 끝이 서로 버티며 이어져 화살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비유는 사람이 도를 익히는 것과 같아서, 생각 생각에 마음을 주시하여 마음이 계속 서로 이어져서 잠시도 빈틈이 없고, 올바른 생각이 끊임이 없고 올바른 생각이 실현된다. ㉔ 또 경에서 이르기를, “지혜의 활로 삼해탈의 화살을 쏘아 화살 끝이 서로 이어져 버티며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② ㉕ 또 찬화를 일으킬 때와 같이⁴⁸⁾ 아직 뜨거워지지 않았는데 멈추어 버리면 비록 불을 얻고자 하나 불을 얻기 어려움과 같다. ㉖ 또 집에 여의주가 있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 없으나 홀연히 어디에 두었는가를 잊어버리면 잠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었던가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㉗ 또 독화살이 살 속에 박혀 있다가 화살을 빼어내도 아직 있는 듯하여, 이와 같이 고통이 이어지니 또한 잠시도 아픔을 잊지 못하는 것과 같다. 생각마다 항상 마음에 이어지니 그 모습이 마땅히 이와 같다.⁴⁹⁾

47) 앞의 책, p.1,288中, “維摩經云 攝心是道場 此是攝心法 法華經云 從無數劫來 除睡常攝心 以此功德 能生諸禪定 遺教經云 五根者 心爲其主 制之一處 無事不辨 此是也。”

48) 찬화(鑽火)는 나무에 구멍을 내어 비벼서 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9) 앞의 책, p.1,288中-下, “如人學射 初大准 次中小准 次中大約 次中小的 次中一毛 次破一毛 作百分 次中百毛之一分 次後前射前 箭箭相柱 不令箭落 喻人習道 念念注心 心心相續 無暫間念 正念不斷 正念現前 又經云 以知惠箭 射三解脫門 箭箭於柱勿令落地 又如鑽火 未熱而息 雖欲得火 火難可得 又如家有如意珠 所求無不得 忽然而遺失 憶念無忘時 又如毒箭入肉 箭鏃猶在 如此受苦痛 亦無暫忘時 念念在心 其狀當如此。”

여기에서, 도신은 수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①의 ㉠·㉡에서는, ‘활쏘기’에 비유하고 있는데,⁵⁰⁾ 활쏘기를 연습할 때 큰 과녁, 작은 과녁, 큰 표적, 작은 표적, 한 터럭, 한 터럭의 백분의 일, 그 백분의 일의 일부, 앞 화살의 뒷부분 등과 같이 큰 목표에서 작은 목표로 줄여가며 연습한다. 이처럼, 수행자도 마음을 점점 작은 한 곳에 집중하여 수행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수행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에서는 ‘삼해탈이라는 화살을 쏜다’고 표현하는데, 이 문구를 통해서, 앞에서 살펴본 ‘존삼’과의 관련을 짐작하게 된다. 원래, 삼해탈은 존삼의 체인 ‘삼해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화살에 비유하고 수일을 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한 것을 볼 때, 존삼과 수일이 선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이점은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원효와는 대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는, 3가지 경우를 비유로 들어가며 수일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에서는 찬화를 일으킬 때에 잠시도 쉬지 않아야 하며, ㉡에서는 집에 여의주가 있으면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하고, ㉢에서는 독화살을 맞으면 화살을 빼어내도 아직 있는 듯이 잠시도 고통을 잊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수행자는 잠시도 쉬이 없이 수일(守一)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상, 도신이 설명하는 ‘수일불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신은, ‘하나의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되, 끊임없이 계속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경전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여러 비유를 들어 그 의미를 가슴에 와 닿게 설명하고 있다. 비록 글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문장의 구성이 매우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원효의 ‘수일심여(守一心如)’

그렇다면, 원효가 말하는 ‘수일심여’는 어떠한 것인가? 『금강삼매경』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지극히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입실제품」에서 대력보살이 입실제의 방법을 묻자 부처님께서 존삼, 수일, 입여래선의 하나로서 ‘수일(守一)’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대력보살이 그것의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 ‘일심의 진여를 지키는 것[守一心如]’이라고 대답하실 뿐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존삼’이나 ‘입여래선’과는 달리, 『금강삼매경』에서는 ‘수일’에 대해서 그 ‘체

50) 불교수행을 화살을 쏘는 연습에 비유하는 장면은, 『문수설반야경』, 『마하반야바라밀경』, 『대지도론』, 『왕생론』, 『마하지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전성산, 양기복 역, 앞의 책, pp.260-261.

(體)’의 측면인 ‘일심의 진여[一心如]’에 대해서나, 그 ‘용(用)’의 측면인 ‘지킨다[守]’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내용을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때에,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그 수일의 내용을 체와 용으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고 있다.

‘일심의 진여[一心如]을 지킨다’고 한 것은, 일심법 가운데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 ‘심진여문(心眞如門)’을 지킴으로써 무명(無明)이라는 큰 용과 같은 힘을 조복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명은 바로 일심의 진여를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⁵¹⁾

여기에서, 원효는 수일의 체(體)인 ‘일심여(一心如)’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일심여’란, 일심법의 두 가지 문인 심생멸문(心生滅門)과 심진여문(心眞如門) 중에서 바로 ‘심진여문’을 가리킨다고 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무명이 심진여문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무명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일’의 수행을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원효는 『금강삼매경』에 등장하는 존삼, 수일, 입여래선이라는 3가지 수행방법을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이라는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원효는 수행자의 마음을 2부분으로 나누어서, 진여문을 닦는 것을 ‘수일’이라는 수행방법에 배당하고, 생멸문을 닦는 것을 ‘존삼’과 ‘입여래선’이라는 수행방법에 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킨다[守]’고 한 것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는 한 마음의 진여한 경지를 고요히 지키고, 선정에서 나와 있을 때에는 일미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지킨다[守一]’고 한 것이다. 이것은 『본업경』에서 심행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 중략 … 생각건대, 삼시(三時)에 중도의 일미를 잃지 않는 것이 곧 이 관행에서 말하는 하나를 지키는 작용이다.⁵²⁾

여기에서, 원효는 ‘수일’의 용(用)인 ‘지킨다[守]’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다. 즉, 수행자가

51) 『金剛三昧經論』(『韓佛全』1, p.645下), “守一心如者 一心法中有二種門 今先守其心眞如門 爲伏無明大龍勢故 無明正迷一心如故.”

52) 앞의 책 p.645下, “此中守者 入時靜守一如之境 出時不失一味之心 故言守一 如來業經大行中言 … 중략 … 案云 三時不失中道一味 卽是此觀守一之用.”

선정에 들어있으면 심진여문(心眞如門)의 경지를 고요히 지키고, 수행자가 선정에서 나와도 여전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 뒤, 『본업경』을 인용하며 언급하기를, 중도(中道)의 일미(一味)를 잃지 않고 항상 어느 때에나 지켜 나아가는 것이 ‘지킨다[守]’는 말의 뜻이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

생각건대, ‘수일’의 용인 ‘지킨다’는 것은, 수일의 체인 ‘심진여문’ 혹은 ‘중도’를 가슴에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담아두는 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지킨다’고 하려면,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에나 나올 때에나 묻지 않고 삼시(三時)에 늘 담아두어야 하는데, 이점은 도신이 말한 ‘끊임없이 계속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원효가 해설한 ‘수일심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원효는 여기에서도 체용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수일의 체인 ‘일심여(一心如)’와 용인 ‘지킨다[守]’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일심여’는 바로 심진여문 혹은 중도를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지킨다’는 선정에 들어가 나오거나 상관없이 늘 심진여문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만약, 도신의 설과 비교해 보면, ‘하나의 사물[一物]’ 혹은 ‘심진여문(心眞如門)’을 대상으로 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되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진여한 경지를 고요히 지키거나 일미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수행구조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도신은 그 대상을 ‘하나의 사물’이라고 하고, 원효는 그 대상을 ‘심진여문’이라고 하여서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⁵³⁾

V. 결어

지금까지, 도신과 원효의 수행관을 소위 ‘수일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수행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도신의 체계는 각 요소간의 상호관계가 아직 유기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즉, 도신은 ‘5단계 수행’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뒤의 2가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후에 좌선, 간심, 사신이라는 ‘3가지 수행’이라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었다.

반면, 원효의 수행체계는 『금강삼매경』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구조

53) 도신은 ‘수일불이’를 말하기 전에 ‘관신공적’을 말하였는데, 관신공적을 통해서 수행자가 아공과 범공의 이치를 터득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의 사물’은 ‘공(空)’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물’과 ‘심진여문’은 사실상 같은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 지못 조직적이었다. 즉, 이지적인 활동과 실천적인 활동을 하는 ‘이입(理入)’을 지전에 배분하고, 자리와 이타의 활동을 하는 ‘행입(行入)’을 지상에 배분하였다. 그리고 이입(理入)의 수행단계 안에서, 존삼을 심신과 심주에, 수일을 심행에, 입여래선을 심회향에 각각 배분하여 수행체계를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다음, ‘존삼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신의 ‘관신공적’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서두에 제시하고, 수행자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6가지 인식기관과 6가지 인식대상을 관찰하면 이들은 모두가 공(空)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수행자는 마침내 공, 무상, 무작이라는 3가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원효는 ‘존삼해탈’을 체용의 논리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었다. 즉, 존삼의 체(體)인 ‘삼해탈(三解脫)’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3가지 지혜를 가지고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면 성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존삼의 용(用)인 ‘간직한다[存]’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나오더라도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다음, ‘수일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신이 말한 ‘수일불이’에는 3가지 내용이 있었다. 즉, 수일이란, ‘한가지 물건[一物]을 주의 깊게 바라보되, 끊임없이 계속하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여러 경전에서 이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된 근거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활쏘기 연습과 같은 비유를 자세히 들며 수일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와 닿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원효는 ‘수일심여’에 대해서도 계속 체용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원효는 수일의 체인 ‘일심여(一心如)’에 대해서는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심진여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해석하였고, 수일의 용인 ‘지킨다[守]’에 대해서는 선정에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상관없이 항상 심진여문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1. 원전

『金剛三昧經』(『大正藏』9)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楞伽師資記』(『大正藏』85)

『金剛三昧經論』(『韓佛全』1)

2. 단행본

박성배, 『몸과 몸짓의 논리』, 서울: 민음사, 2007.

유전성산, 양기봉 역, 『초기선종사- 능가사자기·전법보기』, 파주: 김영사, 1990.

정각, 박진주 역, 『능가사자기』, 서울: 운주사, 2011.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 서울: 민족사, 2000.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 京都: 禪文化研究所, 1967.

_____, 『初期の禪史 I - 楞伽師資記·傳法寶紀』, 東京: 築摩書房, 1971.

_____, 『初期禪宗史書の研究』第6卷, 東京: 法藏館, 2000.

3. 논문

Robert E. Buswell, “The Formation of Ch'an Ideology in China and Korea; The Vajrasamadhī-Sutra, a Buddhist Apocryphon”,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89.

김영일, 「『금강삼매경』의 존삼수일설」, 『대각사상』 제28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7, pp.289-315.

김영태, 「신라에서 이룩된 『금강삼매경』」, 『불교학보』 제25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88, pp.11-37.

- 김종두, 「도신의 선사상에 관한 고찰 - 천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제 31집,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pp.303-330.
- 김진무, 「道信禪師의 禪思想과 그 意義」, 『불교학보』 제42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5, pp.141-170.
- 김진일, 「『능가사자기』 「도신전」에 관한 일고」, 『선학』 제7호, 서울: 한국선학회, 2004, pp.75-103.
- 김호귀, 「『二種入』과 『金剛三昧經』의 理入과 四行의 관계」, 『선학』 제23호, 서울: 한국선학회, 2009, pp.375-418.
- 박건주, 「근래 道信禪師 禪法 연구에 대한 반론(1)」, 『불교학연구』 제10호, 김포: 불교학연구회, 2005, pp.29-58.
- _____, 「근래 道信禪師 禪法 연구에 대한 반론(2)」, 『불교학연구』 제11호, 김포: 불교학연구회, 2005, pp.295-321.
- 석길암, 「『금강삼매경』의 성립과 유통에 한 재고」, 『보조사상』 제31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9, pp.77-125.
- 崔桐淳, 「雙峰道信의 一行三昧에 대한 연원」, 『한국불교학』 제31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2, pp.107- 124.
- 木村宣彰, 「金剛三昧經의 眞僞 問題」, 『佛敎史學研究』 18-2, 1976.
- 水野弘元, 「菩提達摩의 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 『駒澤大學研究紀要』 13, 1955.
- 柳田聖山, 「金剛三昧經의 研究」, 『백련불교논집』 3, 1993.
- Walter, Liebenthal, “Notes on the Vajrasamadhi”, *通報Toung Pao* 42, 1956.

<Abstracts>

Daoxin's and Wonhyo's Standpoint on Cultivation: Focusing on the Theory of Guarding the One

Kim, Yeong-Il

This paper is interested in the standpoint on cultivation between Daoxin (道信) (one of the masters in the early Chinese chan Sect) and Wonhyo (元曉) (one of the representatives in Korean Buddhism).

Before investigating the important theories of the two masters, we should briefly know their system of Buddhist cultivation. Regarding the system, Daoxin's consists of his own 5 steps and 3 methods of cultivation in the *Neungga-sajagi*, while Wonhyo's system has several cultivations in the *Vājrasamādhi Sūtra*.

First, there is the theory of Preserving the Three. Daoxin teaches that after understanding the teaching, 'every karma is changing', the practitioners could know that their six sense organisms and objects are empty and they could then attain 'the three salvations'. Wonhyo explains that practitioners preserve the 'three salvations' which are the results of knowing that their six sense organisms and objects are empty.

Moreover, there is the theory of Guarding the One. Daoxin speaks that the practitioners should observe 'the One Thing (一物) without moving constantly and he then explains the theory with several interesting similes like archery. Wonhyo interprets that the practitioners should keep in mind at any time 'the Suchness aspect of mind(心眞如)' which is from *the Treatise on the Awakening of Mahayana Faith*.

• Keywords

Daoxin, Wonhyo, *Neungga-sajagi*, *Vājrasamādhi Sūtra*, *The Treatise on Vājrasamādhi Sūtra*, The Theory of Preserving the Three, The Theory of Guarding the One.

논문접수일: 2018년 7월 21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14일.